



이제는 '판매 예능'의 시대다. SBS '맛남의 광장'(왼쪽)과 채널A '산지직송 프로젝트, 무작정 커머스'가 전국 각지의 특산물들을 시청자에게 소개하고 직접 판매까지 하면서 공감과 재미를 동시에 얻고 있다. 사진제공 | SBS-채널A



기부와 재미 동시에... '커머스 예능'이 뜬다

채널A '무작정 커머스' 내달 첫방 '맛남의 광장' 지방 농수산물 공유 '폐업요정' 위기의 소상공인과 윈윈

"눈으로 보니까 더 믿을 만하죠?"
14일 오후 전남 무안의 갯벌, 채널A 예능프로그램 '산지직송 프로젝트, 무작정 커머스'(무작정 커머스)의 이휘재·신봉선·홍수아·문수인 등이 인터넷 쇼핑 플랫폼 라이브 방송 전원을 켰다. 무안의 특산물 양파즙과 장어를 시청자에게 직접 팔기 위해서다.
5월 첫 방송할 예정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은 농수산업 부흥의 의지를 드러낸다. 상품의 신선함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양파즙을 둘러

보고, 펠떡펠떡 뛰는 장어를 손으로 잡아 보여준다. 카메라가 낯선 생산자가 연예인들과 어울려 홍보 구호를 외치고, 무안군 홍보대사인 트로트가수 강태관이 깜짝 등장해 노래 한 소절을 시원하게 뽑아 내기도 한다.

● '공익성과 재미 모두 잡는 포맷'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예능프로그램은 또 있다. 현재 방영 중인 SBS '맛남의 광장'은 요리연구가 백종원을 내세워 지방의 농수산물을 이용한 요리 방법을 공유하고, SNS로 홍보·판매한다. 5월부터 방송하는 MBC '십페소생 프로젝트-폐업요정'은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연예인들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모두 '착한 소비'를 주제로 독특한 재미와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특산물을 홍보하는 동시에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판로를 제공한다. '무작정 커머스'를 연출하는 홍은영 PD는 18일 "농어업 종사자 대부분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이라 온라인 판매는 시도조차 못하는 현실"이라며 "프로그램과 협업하는 인터넷 쇼핑 플랫폼에 6개월간 상품을 올려 판로를 열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를 비롯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판매 사이트 등으로부터 협조 및 협찬을 받기도 한다. '맛남의 광장'은 충남 예산의 사과를 이용한 애플파이, 전남 오리고기로 만든 훈제오리 도시락 등을 편의점 브랜드와 손잡고 생

산해 완판했다.

● '간접광고' 위험은 속제

다만 자칫 과한 간접광고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각 제작진이 풀어야 할 숙제다. 실제로 '맛남의 광장'은 지난해 9월 전남 완도의 다시마를 재료 삼은 라면을 계속 노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간접광고 상품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며 '권고'를 받았다.
한 예능프로그램 PD는 "방심위도 농수산물이나 소상공인 상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를 감안하는 추세"라면서도 "관련 기획이 방송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상황이지만 아직은 심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1년 만에 '방방콘', 270만명 몰려 BTS, 온라인 공연 동시 접속자수 자체 경신



방탄소년단 '방방콘'

'최대 동시 접속 270만명!' 그룹 방탄소년단의 '화력'이 더 세지고 뜨거워졌다. 1년 만에 찾아온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스트리밍 축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방방콘) 21'에 전 세계 270만명이 몰려들었다. 이들의 무대에 대한 세계 팬들의 갈증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4월 '방방콘'이 기록한 동시 접속자수 224만명을 넘어선 수치다.

18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전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동안 유튜브 공식 채널 '방방TV'를 통해 과거 콘서트와 팬미팅 실황 등을 '방방콘 21'이라는 타이틀로 무료 공개했다. 2015년 서울에서 연 콘서트 '2015 BTS 라이브 트릴로지:에피소드 I, BTS 비전즈'와 2019년 6월 부산에서 개최한 다섯 번째 글로벌 팬미팅 '패직샷 1호점', 같은 해 5월 월드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브라질 상파울루 콘서트이다.

멤버들은 "방방콘 공연장 내 모든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니 간식과 함께 즐기실 수 있다"며 직접 '인방 1열' 관람 '에티켓'을 소개했다. 멤버들의 인사가 끝나자 시청자수는 곧바로 176만명을 돌파했고, 최대 동시 접속자는 270만명을 훌쩍 넘겼다.

스트리밍 창에서는 전 세계 팬들의 실시간 댓글도 이어졌다. 멤버들의 과거 모습은 물론 공연에 얽힌 추억담이 실 새 없이 쏟아졌다.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와 각종 SNS의 반응도 뜨겁기는 마찬가지다. 관련 키워드는 트위터 전 세계 실시간 트렌드 순위를 모두 장악했고, '방방콘' 관련 해시태그는 350만건에 달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3

'이하늘 친동생' 이현배 돌연 사망



이현배

합창그룹 45RPM의 멤버이자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인 이현배가 48세의 나이로 돌연 세상을 떠났다.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현배는 17일 제주 서귀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의 뜻에 따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19일 부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하늘은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제주로 가 경황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90년대 후반 'MC Zolla'라는 이름의 래퍼로 활동을 시작한 후 45RPM에 합류했다. 최근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동료 가수들의 추모도 잇따르고 있다.

영화 '집으로' 김윤분 할머니 별세



김윤분

영화 '집으로'에 출연한 김윤분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유족에 따르면 김 할머니가 17일 오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2002년 영화 '집으로'에서 도시에서 온 손자 유승호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할머니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연기 경험이 없다가 420만 관객을 모은 영화로 그해 대중상 영화제 신인여우상 후보에 올랐다. 이후로는 고향인 충북 영동을 떠나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왔다. 빈소는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9일 오전.

'에이프릴 괴롭힘 논란' 멤버들 주장 극과 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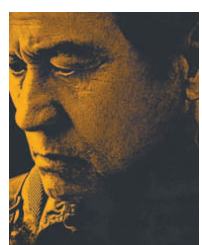


이현주

걸그룹 에이프릴의 전·현 멤버들이 '멤버 간 괴롭힘' 논란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소속사 측은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라 파장은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전 멤버 이현주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팀에서 탈퇴하기까지 멤버들에게 폭행과 폭언, 희롱, 욕설과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예나와 김재원은 "왕따와 따돌림 등은 일절 없었으며 모두가 힘들어했다"며 반박했다. 소속사 DSP미디어도 "이현주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왜곡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1980년 광주를 기억하라!

'아들의 이름으로' 안성기·박근형 주연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1980년 5·18 광주민중화운을 기억하려는 영화가 잇따라 관객을 만난다. '국민배우' 안성기와 박근형이 주연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화가 각각 개봉해 41년 전 아픔을 되새긴다.

안성기와 박근형은 윤유선과 함께 5월 13일 '아들의 이름으로'(감독 이정국·제작 영화사 훈) 극장에 나선다. 1980년 5월 광주에 있었던 남자가 아들과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성하지 않은 자들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다. 영화는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선보인 것을 비롯해 미국 시카고인디영화상에서 안성기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겨주며 뉴욕국제영화상, 런던국제영화제 등에 공식 초청돼 상영됐다.

특히 '아들의 이름'으로는 지난해 가을 건강 이상으로 영화계 안팎의 안타까움을 샀던 안성기가 다시 관객 앞에 나서는 작품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아들의 이름' 측은 18일 "안성기가 건강을 회복하고 영화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영화 시사회를 비롯해 언론간담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2015년 다큐멘터리 영화 '위로공단'으로 한국작가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고 권위의 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도 광주를 이야기한다. 28일 선보이는 다큐멘터리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이다.

영화는 5·18 광주민중화운을 전후해 국가폭력에 의해 소려재단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아픔을 담았다. '좋은 빛'의 도시 광주와 '좋은 공기(Buenos Aires)'라는 뜻을 가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의 진실을 위한 지난한 과정을 그렸다.

임흥순 감독은 한국을 포함한 베트남 등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문제를 다룬 '위로공단'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호평을 받았다.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로 베니스를 찾았던 그는 또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 '포옹'을 29일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다.
윤여수 기자

월드스타가 된 '오지 걸' 로제 금의환향

(호주 여자아이)

'로제의 금의환향'

최근 솔로가수로 데뷔한 블랙핑크의 로제가 자신이 자라난 호주에서 톱스타의 위상을 과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미 그룹의 일원으로 현지 팬덤을 구축해온 그가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로제는 세계적인 패션지 '보그'의 호주판 표지모델로 등장했다. 현지 언론과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에 따르면 로제의 화보와 인터뷰가 게재된 잡지가 8일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일부 상점 등에서는 조기 매진됐다.

로제가 호주에서 얻고 있는 인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로제는 3월 말 현지 매체 '디 오스트레일리안'으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호주



로제

출신 세계적 팝스타'로 꼽혔다.

호주 태생이지만 7살에 호주 멜버른으로 이민을 떠나 자라났다. 2012년 호주에서 열린 YG엔터테인먼트 글로벌 오디션 통해 발탁된 그는 정서적 호주인을 뜻하는 '오지 걸(Aussie Girl)'이라 여기며 호주를 "고향"이라고 표현해왔다. 또

그의 호주 영어 액센트도 현지 팬들의 큰 호감을 샀다.

이 같은 힘에 기대 로제는 2019년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열린 블랙핑크의 콘서트 티켓 매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 다양한 앨범에 대한 현지 팬덤의 구매 의욕을 자극해왔다.

호주의 적극적인 팬덤은 로제의 3월 솔로 데뷔곡 '온 더 그라운드'의 세계적인 인기에도 힘을 보탤었다. 로제는 '온 더 그라운드'로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 정상에 올라 소속 그룹과 솔로로서 1위에 오른 최초의 가수가 됐다. 뮤직비디오 역시 '24시간 동안 가장 많이 본 케이팝 솔로가수의 유튜브 영상'이 되면서 영국 기네스 월드 레코드의 공인을 받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최장수 드라마의 부활... '전원일기' 다큐로 돌아온다

'MBC 창사 60주년' 맞아 재조명 최불암·김혜자 등 에피소드 공개

국내 최장수 드라마인 '전원일기'의 주인공들이 종영 19년 만에 시청자 앞에 다시 나선다. MBC가 창사 60주년을 맞아 '전원일기'의 22년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가운데 '김희장 부부' 최불암·김혜자를 비롯한 아들과 며느리 김용건·고두심·유인촌, '일용염니' 김수미 등이 드라마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를 공개한다.

'전원일기'는 경기도의 양촌리라는 마을에서 살아가는 '김희장'과 '일용네'를 중심으로 농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1980년 10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22년 동안 시청자를 만났다. 마치 한 가족



전원일기

처럼 우의를 다지며 드라마를 선보여 시청자의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특히 최불암과 김혜자는 실제 부부 아니냐는 시선을 받을 정도였다.

주역들은 '전원일기' 특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드라마와 관련한 다양한 뒷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30여명에 달하는 주요 출연자들이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응해왔다. 자신들의 연기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시절을 돌이키며 "전원일기"를 위해서라면 뭐든 좋다"는 열정으로 적극 참여했다.

다큐멘터리는 시트콤 '뉴 논스톱'과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을 다룬 '청춘다큐' 시리즈의 기획자 김현기 PD가 연출한다. 김 PD 등 제작진은 올해 초부터 '전원일기'의 주역들을 만나왔다. 다만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장면을 볼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탓이다. 제작진은 아쉬움을 덜어내기 위해 최소 인원의 소그룹 촬영이나 비대면 화상 시스템 등 대안을 모색 중이다. 김현기 PD는 18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포맷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촬영을 마무리하는 대로 방송 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유지혜 기자